

# 광주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향상 지원 속도낸다

## 市고령친화산업센터, 호남권 유일 혁신센터 선정 총3억4천만원 투입...지스트, 내년까지 사업 수행

광주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고령친화센터)가 호남권 최초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15일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내 고령친화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

기 위해 추진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 참여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협력 기관이다. 광주 고령친화센터는 앞서 1차로 지정된 성남·대구·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됐으며 호남권에서는 유일하다. 공모 선정으로 고령친화센터는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총 3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고령자가 사용하는 고령친화 제품·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이 고령친화 우

수제품 인증 획득, 제품 서비스 품질 강화, 글로벌 수준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주관 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오는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 ▲고령친화제품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수요 맞춤형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 리빙랩·실증 기업 지원 ▲고령친화기업 대상 교육 ▲고령친화제품 체험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센터는 지역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이후 고령친화형 서비스 모델 발굴과 다양한 제품·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 지원, 지역 주력·특화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시·군·구 등 지역 고령친화산업육성 거점기관 및 고령친화산업 기업들의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광주 고령친화센터는 공인 사용성 평가 전문 특화기관으로 인정 받게 됐다. 또 고령친

화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을 위해 타 지역 기관을 찾아야 했던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동교 산업혁신성장과장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은 호남권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메디헬스케어 산업 시장 확대, 고령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역대 지사 초청 ‘글로벌 도정’ 공유

### 김지사 “강점·잠재력 바탕 세계 향해 뛰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순천에서 조규하(제30대), 허경만(제31·32대) 등 역대 전남지사를 초청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글로벌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의 전남은 역대 도지사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며 “조규하·허경만 지사님의 위대한 업적과 전남의 강점·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뛰겠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역대 도지사들은 “김영록 지사

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전남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전남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첨단산업, 관광, 농수산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보고회 이후 역대 도지사들은 지난 4월 개막 이후 관람객 400만명 돌파 등 K-관광의 대표로 자리잡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해 전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대형 행사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와 조규하·허경만 전 지사가 15일 순천에서 열린 2023 역대 지사 초청 글로벌 도정 보고회를 마친 뒤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찾아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도의회 기행위, 道조직개편안 가결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동부지역본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행위 일부 의원은 동부지역본부를 확대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의원들 간 합의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은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부지역본부장(2급 신설)과 일선 시·군 부단체장 등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동부지역본부에는 4개 실·국(일자리투자유치국·문화융성국·환경산림국·여순사건지원단) 320명이 근무하게 된다. /김재정기자

## 道,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유치

### 425억 투입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

전남도는 15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됨에 따라 어촌 활력 증진과 스마트어업을 통한 수산업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양식 기자재 산업 육성과 양식업 기계화·현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3만3천58㎡ 부지 연면적 1만1천200㎡)에 425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조성된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가 조성될 해남은 도내 수산양식 기자재 업체가 집중된 목포, 영암, 완도 등 서남권 중심부에 위치해 기존 관련 기업과 연계가 용이하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다양한

기반 시설 구축이 예정돼 있어 개발 기간이 짧고 입주기업의 투자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엔 수산양식 연구지원센터와 기자재 생산단지, 육상·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물류유통 홍보센터 등이 집적화된다. ‘수산양식 기자재 연구센터’는 기자재 제조 기업의 시험 및 R&D를 지원하고, ‘기자재 생산단지’에선 입주기업의 생산기술과 생산활동을 돕게 된다. ‘물류 및 홍보센터’는 입주기업 생산 기자재 유통과 AS센터, 우수제품 홍보관 등을 운영하게 되며 ‘육상·해상 실증 테스트베드’는 연구센터와 연계해 실증 제품의 고장 원인분석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김재정기자

##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 관리 시급”

### 道, 국회서 비계량 소규모 분산에너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전남도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26년 유럽연합에서 시작될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를 위한 ‘비계량 소규모 분산에너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와 김희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비계량 소규모 분산에너지는 가정, 빌딩, 공장 등에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이나 시설 내 설치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분산자원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전남대학교

교수는 “비계량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주파수 안정도 저하 등 계통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상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자가발전 설비는 전력시장 거래없이 자체 소비에 축적이 불가함에 따라 배전계통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원활한 계통 운영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양승호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실장, 김병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김유창 엔라이트 팀

장 등이 참여해 비계량 소규모 분산에너지 지역별 통합관리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탄소배출권을 많이 확보한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탄소배출권 확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력수급 예측에 도움이 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데이터를 제공할 가정 등에 이익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24년도 국고건의 사업으로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유치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원 공모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15일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원장(상임)과 선임직이사(비상임) 등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제1차 회의를 열어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절차와 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공모 직위는 원장과 선임직이사 8명 등 총 9명이다.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이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응시 원서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사회서비스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창조클럽 아카데미 9기 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9기 동창회장 및 동창회원 일동 -